

“강화 선원사지 본래 절터 맞다”

21개 건물터 전형적 사찰배치 형식 갖춰 출토 연꽃무늬기와·금동나한상 뒷받침



◇강화 선원사지(사적 259호)에서 발굴된 추정 금당지(사진 위쪽)와 선원사에서 출토된 연화문(사진 아래 왼쪽)·법자문 기와(사진 아래 오른쪽).

학계에서 그 위치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보관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강화 선원사지(사적 259호)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번지 일대가 고려대장경관보안처인 선원사지로 추정돼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1977년. 이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동국대 박물관이 4차례에

동국대박물관 1~4차 발굴 임시궁궐터 주장 뒤집어

걸쳐 발굴했고, 이번에 나온 발굴 조사 보고서는 1~4차 발굴 결과를 한데 묶은 것이다.

현재의 사적지가 선원사 터가 아니라 강화 천도 시절 고려의 임시궁궐터였다는 주장은 강화지역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굴 이전부터 있어왔다. <동국여지승람>(15세기말 편찬)과 1931년 간행된 <속수증보 강도지(續修增補 江都誌)> 등 주로 문헌 기록을 근거로 한 주장의 핵심은 “현재의 선원사 터는 가궐터, 총렬사 앞 일대가 선원사 터”라는 것. 그러나 동국대 박물관(관장 장충식) 측

은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의 사적지가 선원사 터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문기와나 금석문 등의 직접적인 고고 자료를 얻지는 못했지만 사찰 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금까지 확인된 21개 건물터의 배치가 전형적인 사찰 건물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 출토유물 역시 절터였음을 뒷받침한다. 막새기와 대부분이 사찰 건물과 관련이 있는 연꽃 문양이나 범어가 새겨져 있고, 일반인들이 개인 신앙 차원에서 호신불로 지니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금동나한상도 출토됐다.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박씨’ ‘유씨’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역시 임시궁궐터라면 나올 수 없는 유물이다.

박물관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현재 터는 선원사 옛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확실히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역만 동서 180m 남북 180m의 대규모 사찰로, 강화도 내에 이만한 규모의 절터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례 발굴에도 전체 사역과 대장경관을 보관했던 관전을 확인하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탐색 작업을 통해 사적지 서쪽과 남쪽, 동북쪽 지역에서도 같은 시대 건물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서쪽 평탄한 지역은 판전일 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을 추가 발굴하면 선원사 터임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nia.com

‘상좌부’·‘소승’ 용어 혼용 잘못

불교평론誌 겨울호

‘상좌부 불교이해’ 특집

불교 계간지 <불교평론> 2002년 겨울호가 특집으로 다른 주제는 ‘상좌부 불교의 이해’이다.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상좌부 불교에 붙어있는 ‘덧칠’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일방적 옹호에 머무르지 않았다.

송위지 교수(서울보건대)는 먼저 “상좌부 불교와 소

승 불교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용어 사용의 혼란을 지적했다.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는 불교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특정 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상좌부 불교는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등의 국가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불교다.

‘상식’과는 달리 상좌부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송 교수는 아쇼카 왕의 전도사 파견을 기원으로 성립된 남방 상좌부 불교가 한자문화권의 북방 대승 불교보다는 훨씬 부처님 시대의 원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좌부 불교에는 기복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 옹호론은 수정 대상이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난다라타나 스님은 상좌부 불교에도 호주(護呪) 또는 호경(護經)이라고 부르는 피릿(paritta) 의식과 보리수 신앙 등 타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난다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는 교학과 학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태국 불교는 계율 중심주의, 미얀마 불교는 수행중심주의가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김재성(위빠사나 수행자 호두마을 지도법사)씨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상좌부 불교에서 행해지는 수행법을 정리했다. 미얀마는 마하시 계통과 레디 사야도 계통(고엔카 수행법이 대표적) 수행법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태국은 좀 복잡해 방콕 및 중부 지역, 북부지역에서는 미얀마의 마하시 계통 수행법이 중심이지만 동북부 지역은 ‘부활한 숲 속의 수행 전통’, 남부 지역은 아찬 붓다다사의 수행법 위주다.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교공예(5)

관음이 읊는 평화의 시

보타락카산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 곁에는 투명한 유리그릇으로 만든 정병(淨瓶)이 놓여 있고 그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다. 이는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에 보이는 정병의 모습이다.

아미타여래는 대세지보살, 관음보살과 함께 극락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왕생자(往生者)를 맞이 하는데, 이때 관음보살은 한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가볍게 쥐고 다른 한 손에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다. 이는 아미타불도 가운데 관음보살의 모습이다. 맑은 정화수가 담긴 정병과 버드나무는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지물(持物)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화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청동기와 청자로 제작된 정병이 적지 않게 전한다. 그 가운데 청동기로 제작된 청동제은입사정병(국보 92호)이 가장 뛰어난 작품



◇청동제은입사정병(국보 92호, 11~12세기, 높이 3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백년이 지난 지금도 우아하고 세련된 정병 속에는 평화롭고 사정이 넘치는 풍경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라가다가 입술이 좌우로 활짝 피었고, 이 와입 맞춘 뚜껑 역시 긴 대롱을 꼽은 모자처럼 위로 높이 솟았다. 한쪽 어깨에는 짙은 나무 가지가 꽂혀 있다. 이는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에 보이는 정병의 형태가 매우 우아하고 세련되었다.

원래 이 정병은 청동색이지만 지금은 연녹색의 녹이 전체를 덮고 있어 오히려 독특한 분위기를 돌우고 있다. 그 바탕 위에 은실이 명료하게 빛나고 있어 한쪽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이 산수표현은 회화작품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은 고려전기 회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렇게 감상적이지도 그렇게 메마르지도 않은 절제된 선으로 물가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그릇의 앞뒤로 늘어져 있고 그 사이에 갈대숲이 점점이 떠있다.

물 위에는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하

빼어난 예술품 청동 은입사 정병 낙시·오리 노니는 풍경 시정 듬뿍

로 꼽힌다. 입사(入緇)란 금속 표면에 음각으로 파고 그 안에 금실이나 은실을 넣어 문양을 내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을 사용한 가장 이른 예는 369년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선사한 칠지도(七支刀)이다. 이 칼 표면에는 금입사(金入緇)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입사기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행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정병·향완·합 등 불교공예품에 입사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고려청자만의 자랑인 삼강기법도 이 입사기법의 자극을 받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청동제은입사정병은 아담한 몸체에 둥근 어깨를 갖고 있다. 목은 유난히 길게 읊

늘에는 기러기가 떼 지어 나르고 있다. 여부는 배를 타거나 물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다. 이처럼 평화로운 풍경에서는 시적인 정취까지 피어난다. 버드나무는 정병과 세트로 병마를 쫓는 상징으로서 정병 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버드나무를 그릇 표면 위에 새겨 넣었다. 또한 굽기가 균일한 몇 가닥의 선으로 산수의 풍경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당나라나 요나라 벽화에서 보이는 양식을 연상케 한다. 11세기 고려의 정치상황을 감안해 보면, 당보다는 요, 즉 거란의 회화와의 관련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17세기 대표적 불전(佛殿) 가운데 하나인 전북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826호)이 전면 해체 보수에 들어간다.

문화재청은 14일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부재와 일부 기둥이 부식돼 있고 건물 뒤쪽 기둥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전면 해체해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3~4월경 해체에 들어가며 17억 원의 예산에 보수 기간은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신사 대적광전은 지난 99년과 92년, 83년에도 일부 부식된 기둥을 교체하고 지붕을 보수한 적은 있으나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3월부터 해체 보수

전면 해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해 해체 보수에 들어갔던 사찰 목조건축물 4동 가운데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7~8월경 공사가 끝나 예전의 고색장연한 자태를 다시 볼 수 있다.



◇보물 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